



『論語語法詞典』, [韓]邊滢雨, 商務印書館

ISBN: 978-7-100-22504-5

■ 『논어어법사전』 (論語語法詞典) 소개

본 사전은 『論語』 어휘의미와 용법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어휘와 문법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論語』의 모든 단음절 단어와 복음절 단어의 의미를 귀납하고 각 단어의 용법과 단어의 통사구조에서의 역할, 단어의 결합능력, 단어의미와 문법기능의 관계 등을 고찰하면서 층위분석법을 활용하여 각 단어마다의 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다.

본 사전은 『論語』 전체의 각 한자를 수록하고 단어와 단어의미에 따라 『論語』

단음절 단어 1593개와 이음절 단어 317개, 3음절 단어 70개를 수록하였으며, 16000여 개의 항목에 대해서 어법분석을 하였으며, 『論語』와 先秦시기 문헌(13경과 제자백가 문헌의 예문) 20000여개의 참고 예문을 포함하고 있다.

■ 저자소개:

이름: 변형우(邊滢雨)

학력: 1997년 베이징대학 중문과 박사학위취득.

주전공: 중국어사, 중국어어법사, 선진시기(先秦時期)어법



■ 출판사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소개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영문명칭: The Commercial Press, 약칭CP)은 중국출판사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출판사이다. 1897년 상해(上海)에서 건립되었고, 1954년에 베이징으로 옮겼으며, 베이징대학과 함께 “中國近代文化的雙子星”(중국근대문화의 쌍둥이 자리별)이라고 불린다.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의 건립은 중국현대출판업의 시작을 의미한다. 장원제(張元濟), 하서방(夏瑞芳)을 필두로 건립을 하였으며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의 건립에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찍이 상무인서관이 건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고몽단(高夢旦), 왕운오(王云五) 등의 걸출한 인재를 대거 채용하여 출판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 규모는 급속히 성장하여 대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 교과서를 편찬했으며, 『사원』(辭源) 등 대형 참고서 편찬, 『진화론』, 『국부론』 등 서양 학문의 걸작을 번역, 소개했다. 루쉰(魯迅), 빠진(巴金), 빙신(冰心), 라오서(老舍)와 같은 유명한 현대 작가의 문학 작품을

출판하고 『사부총간』(四部叢刊)과 같은 중요한 고문헌을 정리 편집하였다. 『만유문고』(萬有文庫), 『대학총서』(大學叢書)와 같은 대형 시리즈를 편집하여 출간하였다. 그리고 『동방잡지』(東方雜誌), 『소설월보』(小說月報), 『자연계』(自然界)와 같은 각종 학문분야의 잡지를 출간하였다.

신중국 건국 이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은 적극적으로 민관협력을 하게 되어 1954년 베이징으로 이전했다.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새로운 출판을 시작했다. 1958년 중국의 출판사가 사업분야를 분담하면서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은 외국철학과 사회과학의 번역출판 업무와 중국어사전 및 외국어사전 출판 업무를 맡게 되었고, 점차 『세계학술명저번역』과 『세계유명인사전기』를 대표로 하는 번역작품과 『사원』(辭源), 『신화사전』(新華字典), 『신화사전』(新華詞典), 『현대한어사전』(現代漢語詞典), 『영화대사전』(英華大詞典) 등을 주축으로 하는 중국어와 외국어사전 출판을 위주로 하고 있다.

■ 『논어어법사전』(論語語法詞典)의 학술과 실용적 가치:

본 사전의 학술적 가치는 『論語』에 대한 기존의 주석에서 탈피하여 역대 훈고학적 성과를 참고하고 고증학적 방식을 취하면서, 『論語』자체의 텍스트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및 선진(先秦)시기 당시의 언어상황을 고려한 역사언어학적 방법을 취하여 저술한 것으로 기존의 『論語』에 대한 주석서와는 차별성이 있으며, 중국의 최근 학술연구동향에 따른 점에서도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 『논어어법사전』(『論語語法詞典』) 연구성과 및 어휘와 어법 기술 특징

1. 본사전의 특징

본 사전은 특정문헌에 대한 사전으로 선진시기의 어휘와 어법을 연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상술한 것과 같은 분석방법을 통하여 『論語語法詞典』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훈고학적 주석방법에서 벗어나 단어와 어법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기술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어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전상에 간단한 배열로 되어 있으나 기존의 다양한 해석이 있을 경우는 개별적인 연구와 근거를 통하여 반영하였으며, 『論語』의 ‘繪事後素’와 ‘父母唯其疾之憂’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두 문장에 대한 어법적 근거를 찾아 반영한 간단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論語』의 ‘繪事後素’

역대로 『論語』 中の “繪事後素” 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으며, 이 분분한 의견에 대해서는 역대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각각의 주장을 펴고 있지만 결국 두 가지 의견으로 귀결된다.

(1) 繪事は 흰 바탕을 뒤에 한다.

(2) 繪事は 흰 바탕보다 뒤에 한다.

(1)의 의견은 주로 漢代注釋家들의 의견으로 대표되며, 《論語集解》에 나오는 鄭玄과 孔安國의 의견을 들 수 있다.

(2)의 의견은 宋代 理學家들의 의견으로 대표되며, 《論語集注》에 나오는 朱子の 의견을 들 수 있다.

선진(先秦)시기 전적에 나타난 ‘後’의 700여개의 예문을 분석한 결과 이 문장의 서로 다른 의견은 근본적으로 ‘後’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3. 『論語』의 ‘父母唯其疾之憂’

역대로 『論語』의 “孟武伯問孝. 子曰, ‘父母唯其疾之憂.’” 『論語2·6』 문장의 “父母唯其疾之憂.” 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이 의견들은 여러 가지 근거로 각각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대립되고 있다. 그 외의 해석은 파생적인 해석으로 간주하고 크게 두 가지만 나열하였다.

(1)부모는 오직 자식의 병만을 걱정한다.(‘其’를 자식으로 해석하여 ‘疾’을 자식의 병으로 해석)

(2)부모에 대해서는 오직 부모의 병만을 걱정한다.(‘其’를 부모로 해석하여 ‘疾’을 부모의 병으로 해석)

5종의 한국번역서에는 이 문장과 관련하여 번역과 함께 근거를 제시하면서 모두 ‘疾’을 자식의 병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의 번역서와 중국의 번역서에 대한 해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 결과 나름대로의 해석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번역서는 대체로 어법적 분석이 부족하였으며, 기존의 해석 근거 내용을 참고하면서 본고의 의견을 보완하여 분석한 어법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父母唯其疾之憂’는 크게 두 가지 설로 압축된다. 즉, ‘其’의 지칭대상이 부모인지 혹은 자식인지 여부이다. 나머지 설은 파생적인 주관적인 해석으로 판단된다.

(2) 인용문에서 단문 안에 대상이 있을 경우 ‘其’는 일률적으로 단문 안의 대상을 재지칭하는 ‘**인용문 단문재지칭의 규칙성**’에 근거하면, ‘其’는 부모를 지칭한다.

(3) 동사 ‘憂’의 주체는 부모가 아닌 생략된 ‘자식’이다. 그 이유는 ‘父母唯其疾之憂.’의 문장이 受事主語文(수동자주어문[논항 화제문])이 아닌 비논항 화제문에 속하며, ‘孝’와 관련되어 부모가 출현하는 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체인 ‘자식’은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父母唯其疾之憂.’의 문장과 함께 『論語』의 앞장과 뒷장의 문장(5,6,7,8장)은 각각 ‘孝’에 대해 묻는 내용이며,孔子는 각각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因材施教’에 해당되며 각각의 인물에 따라 그 인물에 맞는 가르침에 해당하는 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술한 규칙을 근거로 하여 해석을 한다면, ‘父母唯其疾之憂.’는 ‘부모에 대해서는 단지 부모의 질병만을 걱정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